부지

뉴욕 북부에 있는 크로톤 저수지 주변의 언덕은 호수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진다. 부드러우면서 딱딱하고, 완만하고도 불규칙한 기복을 지닌 호숫가는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녹지대가 번갈아 위치한다. 나무, 바위, 물이 자아내는 경관 안에 세워진 집이 바로 집시 주택이다. 부지에서 나온 거친 돌로 세워진 지상층 일부분은 언덕 중턱으로 밀려나 있다. 석재 기단 상부를 차지하는 것은 캔틸레버 구조의 2층이다. 강철, 목재, 유리로 만든 상자 모양의 집은 비스듬하게 비틀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호수가 바로 내려다보이며 햇빛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벽과 지붕면에 통합되는 유리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 이것은 곧 '안에서 밖을 향한' 집을 설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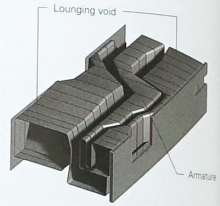
틀

이 주택의 구조적 중심은 지상층에서 시작되지만 완전한 형태와 기능이 얻어지는 '발생적인 핵심'은 2층에 있다. 그 핵심부인 '구조틀'은 중앙에 위치하는 주방, 욕실, 벽난로, 냉난방 시스템, 중앙 음악시스템을 통합한 '스마트 구조'다. 구조틀이 지닌 프로그램 요소들의 변형은 구획된 '유기적 형태'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틀은 하부구조의 유닛 뿐 아니라 순환적이고 생산적인 요소의 기능을 함께 하면서, 실내의 움직임과 외피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유기적 형태는 '단일의 박스'인 주택의 기하학적 형태를 살짝 비튼다. 틀 위의 지붕은 휘어져서 구획된 형태 자체와 궤를 같이 한다. 구조물의 견고한 외피는 이 틀이 발생하는 힘에 답하듯 상자가 부드러워지고 기울어지면서 분절되기 시작한다. 건축은 유기적 형태들과 인간의 형상, 건축물이 담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응답이 든 매개체가 된다. 지붕이 휘어져 틀과 만나는 곳의 유리면은 연속적인 천창의 형태로 함석지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리가 휘어져 보강재 끝의 벽이 되는 곳에는 투명한 사워실이 나무 사이로 매달려 있다. 태양이 하늘에 호를 완성하며 지나가면 구조틀은 그 햇살을 모아 집안 이곳저곳으로 흘려보낸다. 이로써 건축물은 냉난방 등의 환경적 조절장치와 자연환경, 이 두 요소를 두루 고려한 작품임을 스스로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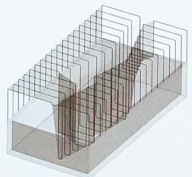
보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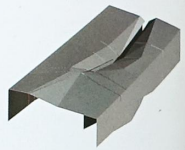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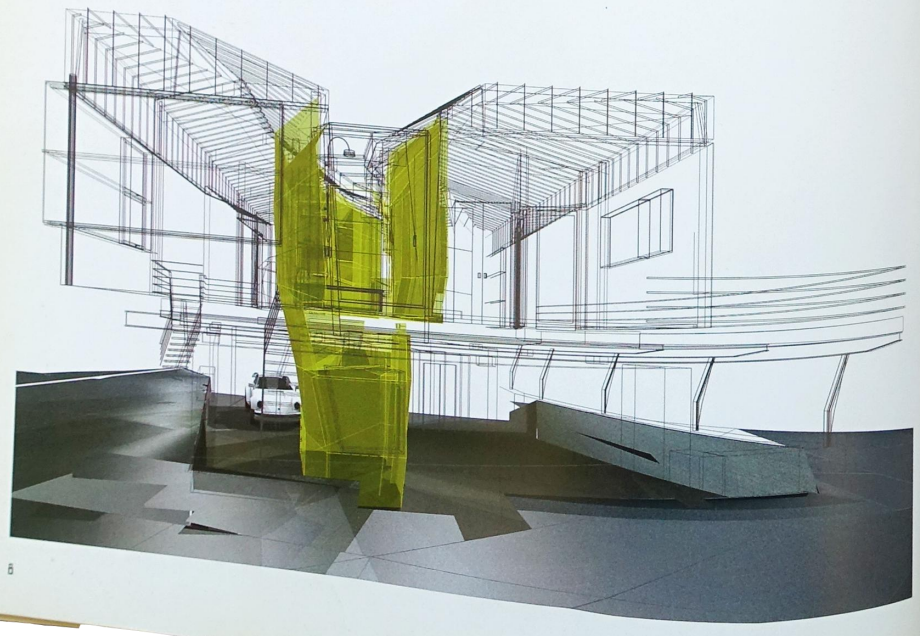
발생적인 구조틀이라는 디자인 개념은 전통적인 주택에서의 현관과 방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전통적인 배치와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겹치는 구역들이 틀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교차와 간섭이 동시에 일어난다. 집의 형태를 고려한 상층부는 규칙적인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더 좋은 전망을 갖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대형 철재 보들은 구부러져 캔틸레버가 되어 공중에 뜬 대형 테라스를 받치고 있다. 집에 들어서면 시선은 주방 벽면에 나있는 일련의 홈에 머물렀다 호수로 이어진다. 2층에는 거실과 식당, 일광욕실, 주인침실과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체육실, 응접실, 차고가 위치한다. 1층에서 호수와 연결되는 통로는 부지에 있던 암석들로 만든 내력벽이 세워진 후미지고 숨겨진 곳으로 야외 욕조와 사워실을 두었다.

집시 주택은 벽-유리-지붕-유리-틀이라는 상호의존적 레이어들의 개념과 하부구조 중심인 구조틀을 이용하여 효율성, 내 · 외부의 관계, 자연 광원 등의 수단을 잘 절충한 좋은 사례다.



Armature inserted within 'BOX'


Armature as connective void


Armature as generative structure : Roof deflection